

2020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

주제 |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속기산업의 역할

일자 | 2020. 1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주최 | 한국속기학회

후원 | (사)대한속기협회

 한국속기학회

2020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 일정

I 운영일정 및 방법

- 일자 : 2020.11.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주제 :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속기산업의 역할
- 운영방식 : 세미나 발표자 등만 참석한 세미나 내용 녹화 후
온라인에 영상 게재
- 주최 : 한국속기학회
- 후원 : 대한속기협회

II 세부 내용

구분	주제	발표자
제1발표	Untact 환경과 회의록	김한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제2발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의 속기사의 역할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제3발표	비대면 시대 속기직무 개발 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 국내외 속기 산업 비교를 중심으로 -	최윤정 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
종합토론	비대면 시대의 속기산업의 역할	좌장 : 조정윤 토론 : 김한우 김주영 최윤정

목 차

개회사	1
조정윤(한국속기학회 회장)	
제1발표	3
Untact시대와 회의록 김한우(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제2발표	13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의 속기사의 역할 김주영(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제3발표	30
비대면시대 속기직무 개발 방향에 대한 소고 - 국내외 속기산업 비교를 중심으로 - 최윤정(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	
종합토론	45

좌장 : 조정윤

토론 : 김한우 / 김주영 / 최윤정

개회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속기학회 학술대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학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대한속기협회, 한국스마트속기협회, 한국스테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발병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선언과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물론 개개인의 일상생활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방식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속기학회는 “포스트코로나, 비대면시대의 속기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다양한 속기산업 현장에서 각기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 나갈 것인지 스스로 탐구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세미나에서 비대면시대의 속기산업의 역할을 고안하는 귀한 시간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속기학회의 역할에 대한 제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속기산업에 대해서 깊이있게 통찰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직접 대면방식으로 세미나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학회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고민이 모여 학술적 관점에서 속기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와 개최를 위해서 수고하신 학회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학술대회에서의 논의가 속기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면서 개최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한국속기학회 회장

조 정 윤

제1발표



발표자 : 김한우(한양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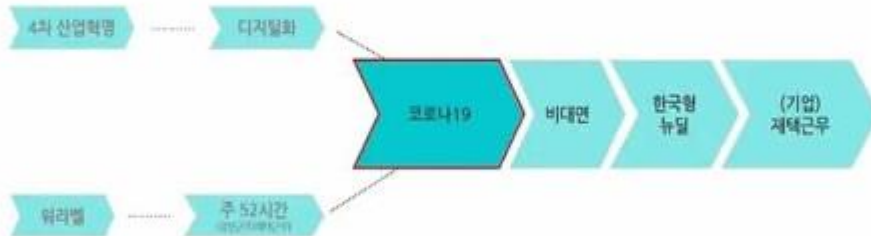
Untact 환경과 회의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속 기 학 회 이사
金 漢 宇



이제는 '뉴 노멀'이 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를 계기로 전통적인 업무환경이 붕괴 →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비대면 사회 = 디지털 사회 (IT)

▶ TMI

(by Daou Soft)

업무 프로세스별 디지털(데이터)화

"비대면 SW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성하고, 자연스럽게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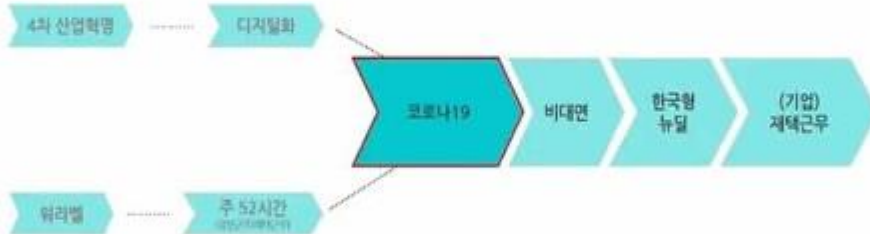


▶ TMI

업무현황, 의사결정, 회의.....
회의록 작성은?

이제는 '뉴 노멀'이 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를 계기로 전통적인 업무환경이 붕괴 →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비대면 사회 = 디지털 사회 (IT)

▶ IT

(by Daou Soft)

업무 프로세스별 디지털(데이터)화

"비대면 SW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성하고, 자연스럽게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IT

업무현황, 의사결정, 회의.....
회의록 작성은?

• 자동화된 메모

- “가장 중요한 구글 Meet 의 부가기능이 남아있다. 바로 구글 Meet 의 실시간 자막 생성을 기반으로 모든 회의 내용을 받아 적고 저장하는 기능이다.
- 이 기능의 이름은 '택틱 핀 포 미트(Tactiq Pins for Meet)'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구글 미트 화면의 하단에 있는 '자막 켜기(Turn on captions)'를 클릭한다. 그러면 택틱이 화상회의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저장하기 시작한다.

Remote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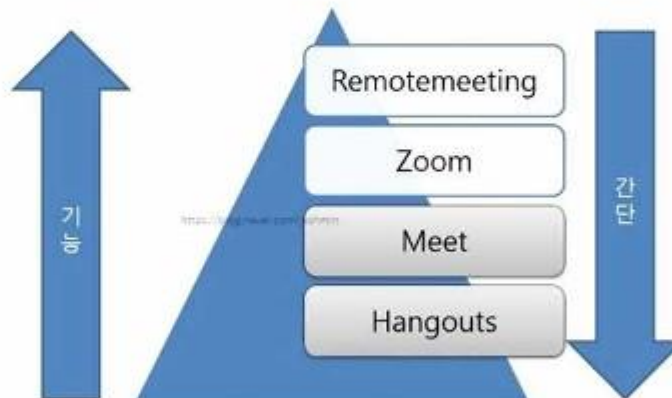
위 기준으로 내게, 우리 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형아웃 → 미트 → 줌 → 리모트미팅 순서로 올라갈수록 기능은 좋아지고 돈은 들고...^^

반대로 내려갈수록 기능은 단순해지고 비용은 저렴해지지요

zoom의 더 비싼 유료버전을 사용하면 리모트미팅보다 좋을수도 있구요...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사용해본건 아니지만 최소한 무료버전을 보면 아래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코 웹엑스 Cisco webex	줌 Zoom	스카이프 Skype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MS Teams
				
지원 OS	MS Windows Mac OS	MS Windows Mac OS Linux	MS Windows Mac OS Linux (부분적 지원)	MS Windows Mac OS Linux
회의 인원	최대 3000명 (무료 100명/요금제별 자동)	최대 500명 (무료 100명/요금제별 자동)	최대 1000명 (무료 50명)	무제한 (요금제별 자동)
지원 해상도	VGA & HQ & HD	HD	VGA & HQ & HD	VGA & HQ
화면 공유	✓	✓	✓	✓
모바일 지원	✓	✓	✓	✓
화이트보드	✓	✓	✓ (비즈니스 버전)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이렇게 준비하세요”

K-비대면 솔루션 (언택트)페어는

비대면 솔루션 수요기업에게는 각 기업 환경에 적합한 비대면 솔루션 도입을 위한 가이드를
비대면 솔루션 공급기업에게는 자사의 기술과 솔루션을 수요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행사입니다.

비대면 솔루션 공급기업

6개 분야 300개



비대면 솔루션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매칭 B2B 마켓

Google Meet 개요 선택 옵션 요금제 및 구매

로그인 회의 참여하기

교육 및 의료용 솔루션 자세히 알아보기

프리미엄 화상 회의를 이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비즈니스 회의를 위한 Google Meet 서비스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또는 회의 기록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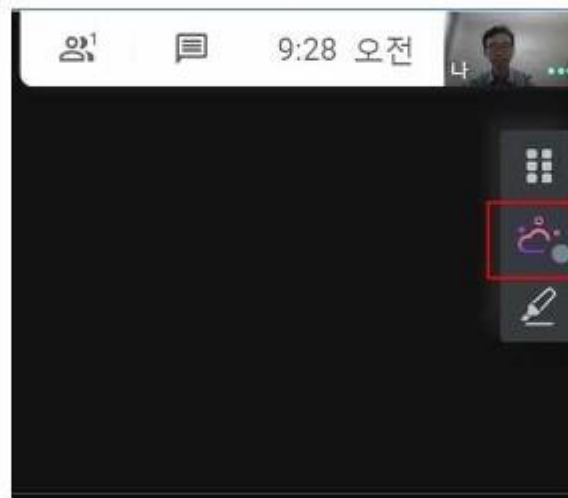
계정이 없으신가요? 무료로 가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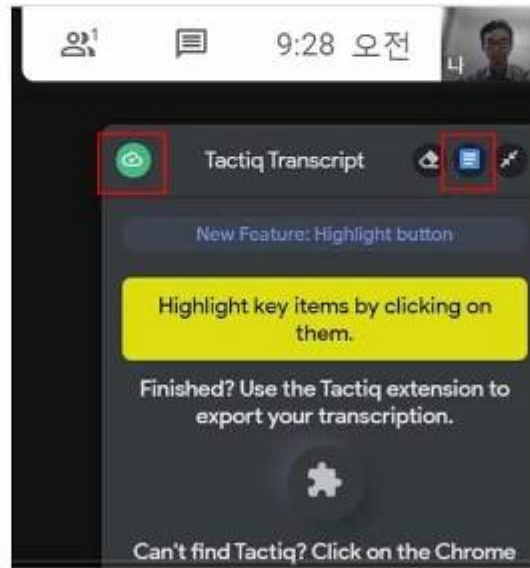
(by Google)

자막 기능 및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Tactiq for Google Meet" 와 "Meet Transcripts"를 구글 검색을 통해 찾은 후, 추가로 설치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창의 오른쪽에 있는 "logo 아이콘"(아래 이미지 중 빨간색 사각형 부분)를 선택하면 meeting 참가자들의 대화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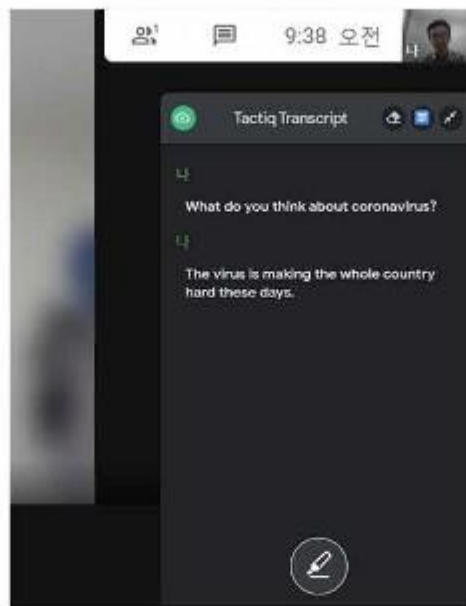


왼쪽의 빨간 사각형 아이콘은 Auto-save 기능 on/off 버튼,
오른쪽의 빨간 사각형 아이콘은 "open Google Document" 를
열수 있는 기능



(by Google)

Meeting 참가자간에 대화한 내용이 표시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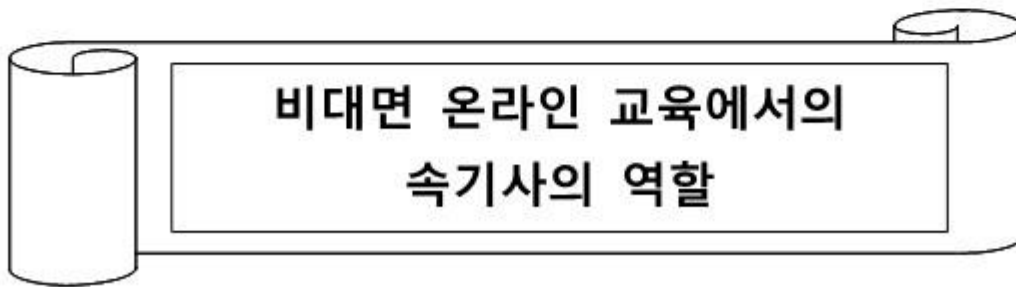
(by Google)

Meeting이 끝난 후, 오른쪽의 "open Google Document" 아이콘을 눌렀을 때 뜨는 화면



- 화상회의에 속기사 초대
- 기존의 화상회의 Solution에 음성인식기능 부가
 - - Google Meet
 - - 음성인식 Software : Heavy
 - - Engine을 보유한 회사가 적다
- 화상회의 후, 음성인식 Cloud 로 전송
- 화상회의 후, 전용 음성인식 Server로 전송

제2발표



발표자 : 김주영(한국복지대학교 교수)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의 속기사의 역할

김주영(교수, 한국복지대학교)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올 1월 20일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첫 감염자로 확인된 후 지금까지(2020.10.5. 기준) 2만4천91명(사망자 421명 포함)이 확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은 3월 11일 UN의 팬데믹(대유행, pandemic) 선언 이후에도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미 사망자도 100만 명을 넘는 상태다. 처음엔 공항과 항만이 기능을 멈추고, 학교가 문을 닫고, 중요한 회의들도 열리지 못하였다. 점차 적응과정을 거치며 교역은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이루어지고, 회의나 교육, 연수는 그동안 축적된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활용한다. 특히, 교육이나 연수의 경우 사전에 제작한 녹음이나 동영상 파일 구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소리(음성)를 듣지 못하는 시청각장애인은 영상과 음성으로 전달되는 비대면 온라인 매체나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상 강의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화 화면이나 문자자막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특별한 시기에는 이러한 지원 또한 원거리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대면 원거리 지원은 한국복지대학교의 ‘원격 교육지원 시범사업’ 운영으로, 속기계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속기가 팬데믹 시기 비대면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서 속기사의 자질과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속기의 정의

대한속기협회(1998)에서 발간한 『韓國速記五十年史』에서는 속기를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표시를 어떤 특정의 부호문자인 속기문자로 정확하게 빨리 필기하여 이것을 일반문자로 번문하는 활동의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속기활동의 수단인 특정의 기호(부호)를 ‘속기문자(速記文字)’라 하고, 속기문자를 사용하여 속기하는 기술을 ‘속기술(速記術)’이라 하며, 이 같은 속기술의 공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속기사(速記士)’, 속기사에 의해 속기된 기록을 ‘속기록(速記錄)’, 속기를 통해 형성된 문화를 ‘속기문화(速記文化)’라 하고, 이 같은 모든 부문에 대해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학술적으로 비교분석 체계화하면서 속기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문이 ‘속기학(速記學)’이라고 적고 있다.

한편, 1972년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한 『속기총람』에 의하면, 속기란 정상적인 음성에 의한 의사표시를 문자에 의한 의사표시로 가장 빠르고 온전하게 대체하는 활동의 총칭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1969년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속기개관』에 따르면, 속기사는 발언을 정확하게 청취하고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여 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속기 방법으로 기록하며,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하여 번문에 객관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라고 개념 짓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컴퓨터 속기와 그에 따른 자격시험제도의 변화로 이전의 정의만으로는 속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속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그러뜨림 없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일반문자로 기록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그 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속기사라고 규정하면 좋을 것이다.

2. 속기 지원의 필요성

학생의 장애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요구하는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장애는 크게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체장애의 경우 주로 캠퍼스 이동 및 접근편의(캠퍼스나 교사의 계단, 출입구의 단차, 층간 이동을 위한 수단, 이용시설의 충분한 공간 등)를 요구하며, 시각장애의 경우 이동 및 접근편의와 함께 정보 접근편의(강의교재, 핸드아웃, 강의록, 참고자료 등의 점자 또는 음성 변환 자료)를 요구한다. 이에 비해 청각장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동 및 접근편의에 대한 요구는 적을 수 있으나, 정보 접근편의에 있어서는 시각장애학생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청각장애인은 언어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수단으로 음성보다는 시각을 사용하므로 음성언어가 주된 강의를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강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화로 통역해 주거나 문자로 전달하는 지원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을 지원할 인력으로는 수화통역사와 속기사가 있다. 시각장애를 지원하는 점역사와 달리 이들 인력은 강의실에 직접 투입되어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른 장애에 비해 지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몇몇 대학들에서 청각장애학생 지원 인력으로 수화통역사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재학생 중 청각장애학생들의 학

습과 캠퍼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수화동아리 회원들의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수화통역은 이들을 위한 완전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화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화는 촬영을 해 두지 않으면,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이다. 즉, 지속성과 보존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내용은 학기말 평가를 위해 다시 복습을 하거나 정리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화로 전달된 내용은 말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의 습득과 이해, 보존,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보존성이 생명인 문자화는 의회나 법원에서의 기록만큼이나 개인의 학습발달에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수화가 갖고 있는 학습상황에서의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필 지원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그것은 강의 내용의 요약 전달에 그칠 뿐 전체 전달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곤란이 따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강의 전달 문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컴퓨터 속기에 의해 열리고 있다. 컴퓨터 속기는 진행 중인 강의 내용을 모두 실시간 문자로 변환한 후 청각장애학생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강의가 끝나면 알맞게 편집하여 제공하는 대필(note taking)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속기의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할 수 없었던 지원 분야라 아니할 수 없다.

3. 비대면 원격 교육지원

1) ‘원격교육’ 과 ‘원격 교육지원’

사람들은 보통 ‘원격 교육지원’을 이야기하면 ‘원격교육’ (distance education)을 떠올린다. 원격교육이란 학자들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강의자와 수강자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을 말한다. 오늘날 원격교육은 ‘distance learning’, ‘on-line learning’, ‘web-based learning’, ‘e-learning’ 등의 다양한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맹지언, 2006). 정인성(1999)은 원격교육을 크게 3기로 나누어 서신을 이용한 통신교육(1880년대 중반~), 대중매체를 이용한 통신교육(1930년대 초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신교육(1990년대 이후~)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원격교육의 목적보다는 전달 매체의 변화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전달 매체의 변화는 원격교육의 정의를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 특히, 3기에 접어들면 원격교육이 우편이나 방송에 의한 일방적 전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것은 뉴미디어라 불리는 컴퓨터, 컴퓨터매개통신,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전, 통신위성, 각종 원격통신회의 체제 발달로 실현된 것이다. 원격회의기술(teleconferencing technology)의 발달로 강의자와 수강자 사이의 실제적 분리가 꼭 학습상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으며, 개별 학습은 물론 협동과 집단 학습이 통합된 형태의 학습으로 변신하였다.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강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던 것에서 이제는 각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주문식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표 1> 원격교육과 사이버 교육의 비교

구분	원격교육	사이버 교육
개념	교육 형태적 개념	교육 형태 및 교육 내용적 개념 (원격교육을 포함)
공간	Place to Place 물리적 교육 공간 존재	Media to Media 장소 완전 개방
시간	시간대 제약	시간적 제약 극복 (실시간 or 비실시간)
교육수요자	등록된 학생(제한적)	등록된 학생 (+개방적, 모든 사람)
교육공급자	해당 교육기관	국내외 모든 교육기관과 연계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관계	단방향성, 제한적 쌍방향성	쌍방향(실시간, 비실시간)
교육내용	공급자 중심, 제한적	수요자 중심, 개방성, 다양성
설립목적	제2의 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기회 제공
교수의 역할	지식의 전달자	안내자, 촉진자

※ 출처 : 박경재(2000). **가상교육체제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향**. 교육부.

원격교육의 이러한 발전된 현상을 세분하여 어떤 사람들(조영임, 2005; 박경재, 2000)은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이버 교육이 원격교육의 환경 변화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사이버 교육은 컴퓨터 네트워크로 형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원격교육은 인쇄매체나 대중매체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2기까지의 원격교육을 순수한 원격교육으로 보고, 제3기부터의 교육은 기존의 원격교육도 이루어지지만 변화된 매체로 인해 좀 더 기존의 교육과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격교육과 사이버 교육은 <표 1>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2) 원격 교육지원

원격 교육지원(distance supports of education)이란 원격교육과는 다른 개념이다. 원격 교육지원에서는 ‘지원’이라는 측면이 우선 강조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원격 교육지원은 컴퓨터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원격회의기술(teleconferencing technology)의 발달에 의해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이 ‘시공(時空)을 극복한 지식의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원격 교육지원이란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불리함을 겪지 않고 받아들일도록 원거리에서 돕는 일체의 서비스로 목적 자체가 원격교육과 다르다. 원격교육이 어떻게 하면 원거리에서도 수강자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원격 교육지원은 어떻게 하면 수강자에게 교육내용을 ‘더 잘 전달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즉, 전달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유일한 공통점은 둘 다 ‘원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표 2> 참조).

<표 2> 원격교육과 원격 교육지원의 비교

구 분	원격교육	원격 교육지원
배 경	교육(지식 전달)	교육지원
목 적	원거리에서의 교육	원거리에서의 교육지원
대 상	일반학생	주로 장애학생
구 조	강의자 (수강자와 다른 장소) ↓ 교육내용 (조직화된 지식) ↓ 수강자 (일반학생)	강의자 (장소 구애 없음) ↓ 교육내용 (+보완/대체방법) ↓ 수강자 (장애학생)

이때 ‘교육지원’ (supports for education)만을 떼어내 생각하면, 일차적으로는 강의자가 교육내용을 수강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차적으로는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그 밖의 교육활동이란 예를 들어, 도서관 이용, 동아리 활동, 기숙사 생활, 진로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학생들이다. 일반학생들은 이미 기존의 교육환경이 교육받기에 불편이 없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개인적인 신체적, 정신적, 또는 지적 조건이 다양하므로 일상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아야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있을 경우 강의자가 설명할 때 반드시 면대면 자세를 취하고 이야기 한다든가, 구어나 문자보다는 수화에 의존하는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풍부한 시각적 첨부자료(hand-out)를 제공한다든가, 또 강의에 수화통역사나 속기사를 배치하여 강의자의 말을 통역한다든가, 시각장애학생에게 교재를 사전에 점역하거나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취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학업에 매우 곤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강의자가 수강자와 면대면 상황(즉, 강의실 내)에서 교육을 하든 아니면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을 하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수강자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불리함을 겪지 않고 일체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돕는 모든 서비스를 원격 교육지원이라 할 수 있다.

4. 원격 교육지원 동향과 체계

1) 장애인 원격 교육지원 동향

원격 교육지원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아직 물리적 한계가 많다. 현재로서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분야가 인터넷을 통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원거리 지원(distance support)은 1980년대 영국의

왕립 청각장애인 연구소(RNID, The Royal National Institute for Deaf People)의 소장이었던 폴린 어슬리(Pauline Ashley)에 의해 시작되었다. 100명의 신청자를 받아 ‘RNID TypeTalk’ 서비스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전국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런던에 소재한 RNID에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여 연결하는(text to voice relay) 일종의 통신 중계 서비스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원격 교육지원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영국왕립농아연구소 및 왕립연구소 산하 Typetalk 사이트).

현재 외국의 경우 원격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으로는 미국의 위스콘신 메디슨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와 일본의 츠클바 기술대학교를 들 수 있다. 위스콘신 메디슨 주립대학교는 주로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재를 대체자료(점역자료 또는 음성자료)로 변환하여 위스콘신주 내 14개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원격 교육지원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2008년 츠클바 기술대학교의 청각장애학부에서는 지극히 제한된 강의이기는 하지만, 동경에 있는 한 속기 회사와 인터넷으로 연결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의 강의 내용을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가 있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일본의 경우 인터넷 사용료가 매우 높아 현실화시키기에는 당분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밖에도 미국에서는 한 이동통신사(AT&T)가 참여하여 원격 영상통역과 원격 자막(video remote interpreting & remote captioning)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화상폰을 이용한 청각장애학생의 원격 교육지원을 모색중이라고 한다(한국재활복지대학 특성화사업단, 2008).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전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화통역과 속기를 통한 문자통역 지원을 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중단하였지만, 민간(한국스테노)에서 자생적으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

다. 2020년 현재 한국스टे노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30여명의 전문 속기사를 배치하고 대학과 복지관 등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2) 원격 교육지원 체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원격 교육지원 체계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화상 커뮤니케이션과 텔레컨퍼런싱 기술을 응용한 쌍방향 실시간 지원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크게 청각장애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체제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산 등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아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원격 교육지원 시스템만 운영되고 있다.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원격 교육지원은 우선 원격의 수화통역과 문자통역에 맞추어져 있다. 이 시스템 기술은 원격 교육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솔루션(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을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전송 기술을 구현하여, 초간편 전송 및 수신 겸용 장비(유저용 단말 시스템)를 통해 구축되어 있다. 원격 교육지원 시스템은 원격 교육지원실과 원격 교육지원 전용 웹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원격 교육지원실에는 강의 영상 및 음성 수신 장비와 수화 전송용 카메라, 문자 전송용 입력기(속기전용자판기), 웹 서버, 영상 및 음성자료 편집 시스템, 영상 및 음성 자료(강의자료)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스튜디오에 각각 전문수화통역사와 속기사가 배치되어 있다. 원격 교육지원 전용 웹 사이트는 교육지원 요청 및 승인, 실시간 교육지원 창, 강의 다시보기, 웹 사이트 사용 매뉴얼, 기타 교육용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부속 시설로 원격 강의 전용 강의실과 매체제작용 자료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5. 장애학생 지원 속기사의 자질

속기(速記)의 한자말이 갖는 의미만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은 빠르게 기록하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속기사는 무조건 빨리만 기록하면 훌륭하다고 오해한다. 일견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속기사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속기사에게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야에서 속기를 하는가에 따라 역할 기능이 다를 수도 있다. 어쩌면 속도라는 것은 역할 기능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속기사의 일반적 자질

홍기표(1998)는 ‘속기총람’을 인용하여 속기사의 자질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 첫째,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며(청취능력),
- 둘째, 그 발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운필능력),
- 셋째,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수문능력)

즉, 청취능력(聽取能力)과 운필능력(運筆能力)과 수문능력(搜文能力)이라는 세 가지는 완벽한 속기록의 작성을 위해 속기사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3대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청취능력은 상대방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소란스러운 여건으로 중간중간 정확한 음을 놓치는 경우, 속기자의 청취 오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말하는 사람이 설측음이 되지 않아 ‘바람’을 ‘바담’이라고 한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천사’라고 말해야 할 것을 그때마다 계속 ‘악마’라고 한다거나, 또는 속기사가 ‘UR 협상’을 ‘6월 협상’으로 오청(誤聽)하는 경우 이를 사전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신속히 바로잡으면서 기록하는 능력이 곧 청취능력인 것이다.

운필능력(기계식 속기에서는 ‘運指能力’라고 해야 더 정확한 의미임. 이하 ‘운필’은 ‘운지’로만 기술함)은 선천적인 기능이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재능(또는 ‘끼’, talent)이라고 하는 것이다. 홍기표(1998)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특유의 빠른 손놀림과 순간순간 언어를 분석하고 부호화할 수 있는 예민한 언어감각을 지닌 사람은 속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20~30명에 한 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말은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배가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국회속기양성소 응시자격을 대졸 이상으로 하여 소정의 교양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입학시킨다고 한다.

수문능력은 음성언어를 문자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이라 하겠다. 우리말의 음성언어는 대부분 주어가 생략되거나 대답의 경우 명사 수준으로 끝을 맺거나, 말의 끝을 올리거나 내림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이는 음성언어의 경우 이렇게 빠진 부분을 표정이나 몸짓, 감정이 실린 음의 강약, 부드러움 등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음성언어의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음성언어만을 모사하여 문자로 기록할 경우 그 기록물은 말한 이의 메시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여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하는 능력이 수문능력이다. 예를 들어, 속기록에 “밥 먹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단순히 이 문장만을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다. ‘누가 밥을 먹으라.’는 것인지, ‘내가 밥을 먹어도 되느냐.’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야.”라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위의 문장은 “너는 이제 밥을 먹어라.”라거나, 아니면, “내가 밥을 먹어도 돼?”라는 문어체의 문장

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문능력의 핵심은 기본적인 문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각종 문장부호, 문법지식의 정확한 사용능력이 그것이다. 이는 속기 중에는 물론이고 번문이나 편집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서의 자질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한 청취, 운지, 수문 능력은 일반적으로 모든 속기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질이 각각의 종사하는 분야에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는 역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속기사들은 앞서 제시한 속기사로서의 일반적인 자질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원하는 학과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의회 속기나 법원 속기와는 달리 전사(全寫) 자체보다도 강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전달(運指)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자가 강조한 부분은 특수문자로 표시하여 학생들이 주지하게 한다면, 회상할 수 있는 단서를 고안하여 보여준다면 하는 것이 예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속기사들은 대학에서 실시간 자막 속기 지원 능력은 갖추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전공서적 읽기와 앞으로 강의될 내용들을 사전 숙지함으로써 청취력과 운지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새로운 용어를 한 번 습득하면 그것이 틀린 용어인지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 축적된 그 시간의 텍스트 자료를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텍스트 자료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하나는 원래의 속기문서를 맞춤법이나 오타 교정 수준으로 편집하고, 나머지 하나는 요점만 간추려 편집한 것이다. 이 둘을 별도의 문서로 만들 것이 아니라, 내용만 ‘원문’ 과 ‘요약문’ 으로 나누어 하나의 문서 파

일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굳이 원문을 제공하는 것은 곧 강의를 반복 회상하는데 수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동시 제공이나 어느 하나의 제공이나를 결정하는 것도 개별적인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밝힌 대학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속기사가 해야 할 지원 자질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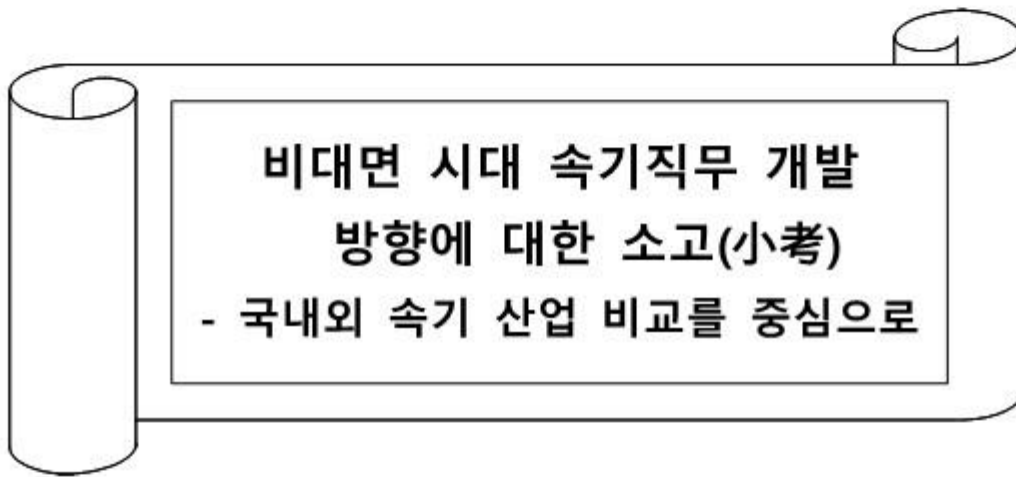
첫째, 학과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아 청취력과 운지력 향상을 기함으로써 정확한 속기 자막을 지원한다.

둘째, 강의실에서 기록한 원문은 수문과정을 거쳐 다음 시간 전까지 해당 학생에게 요약문과 같이 제공한다.

■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의사국속기과(1969). 速記概觀.
- 김주영(2011). 원격 교육지원이 청각장애대학생의 강의참여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2(1). 435~458.
- 김주영, 김은숙(2005).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분야에서의 속기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일 연구. **특수교육연구**, 12(1). 185~205.
- 대한속기협회(1998). 韓國速記五十年史. 서울: 도움사.
- 대한속기협회(1972). 速記總覽. 서울: 대한속기협회.
- 맹지언(2006). 웹 기반 미디어 지향적 원격교육 시스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정재(2000). 가상교육체제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향. 교육부. 영국왕립농아연구소 사이트 : <http://www.rnid.org.uk/html/services/communication>
- 왕립연구소산하 Typetalk 사이트 : <http://www.rnid-typetalk.org.uk/frame.html>
- 정인성(1999). 원격교육의 이해. 서울:교육과학사.
- 조영임(2005).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국재활복지대학(2008). 국외연수보고서. 미간행 문서.
- 홍기표(1998). 속기사의 조건과 속기환경의 변화.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 자료 <http://www.steno.or.kr/>

제3발표



발표자 : 최윤정(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

비대면 시대 속기직무 개발 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 국내외 속기 산업 비교를 중심으로

최윤정(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

I. 서론

1. 속기 개요 및 분류

- 속기(shorthand, stenography)는 공공, 민간, 특수분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업무를 의미함(조정윤 외, 2017).
- 국내 속기 산업은 2014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됨으로써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9년까지 공공, 민간, 특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에서 속기사들은 대체로 국회, 의회, 법원, 검찰청 속기공무원, 자막방송 속기사, 교육속기사, 군속기병, 경찰청 속기사, 속기사무소, 프리랜서 속기사 등으로 활동 중임.
- 속기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조사한 결과, 속기사 직업은 명확한 직업·산업 분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즉,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의하면, 속기 관련 직업 분류는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거나, 경영지원 및 행정서비스, 사무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들로 구성된 중분류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내에 포함되어 있음. 그 중 속기 관련 직업은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에 포함되며, ‘0299 기타 사무

원'에 속한 속기 관련 직업으로 '수필속기사'와 '컴퓨터속기사'가 속해 있음.

-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에 의하면, '속기 관련 산업'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단순히 포함되는 산업분야를 추측할 수 있음. 즉,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 아래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산업세세분류인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또는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또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의하면, 속기는 대분류 '3. 사무종사자' 중 '39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아래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39992. 속기사'가 포함되어 있음. 즉, 속기사는 '39991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39999 그 외 사무원'과 함께 세분류 '3999 기타 사무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KSCO에서 속기사는 법원, 기업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국회, 지방의회 등에서 발언내용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기록하는 자를 말하며, 직업예시로는 전자 조판원, 자료편집 사무원, 속기사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속기사는 여전히 산업 및 직업분류에서 전문성을 지닌 직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됨. 따라서 공공, 민간, 특수 분야에서의 속기사 수요가 증가되는 현황을 반영할 때, 직업분류 개편 과정에서 속기사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세무사, 관세사 등과 유사한 수준의 전문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속기 관련 직무재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국내 속기 직무의 특성 및 개발의 필요성

- 속기 직무에 관한 직무분석 연구(조정운 외, 2017) 결과, 속기 직무는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무의 전문성이 높고, 포괄하는 직무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속기 직무

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가능하며, 직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 직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직무 전문성과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일반 사무직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임. 예컨대, 고용부장관이 발표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에 의하면, ‘속기사’는 ‘기타사무원’으로 분류되어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직종으로 제시되고 있음. 다시 말해 정부는 속기사를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기타 사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준고령자 및 고령의 퇴직자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임.
- 특히 해당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는 주요 직업군 아래에서 ‘보조 혹은 지원’ 역할을 하는 직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음. 즉, 속기사 역시 주요 직업으로서가 아닌 보조적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임.
-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회의나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속기 직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속기 직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고용, 노동 및 교육 전반에 적용하여 활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속기학회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속기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확산을 위해 속기 관련 일자리나 직무에 대한 재편방향을 제시, 속기 직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국내외 속기직무의 경향성을 확인, 속기 관련 일자리와 직무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II. 해외 속기 일자리 및 직무 동향

1. 미국

- 미국에서는 속기사의 주요 업무를 영역별로 법원기자, 실시간 속기, 자막방송 등 자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미국에서 속기분야 자격검정을 시행 중에 있는 대표적인 2개 기관으로 National verbatim reporters association(NVRA)와 National Court Reporters Association(NCRA)가 있는데, NIRA는 법정기자, 실시간 기자, CART 제공자, 방송자막 기자 등의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NCRA는 법원기자, 실시간 기자, 방송캡션 및 특수교육 분야 직업인, 학생, 프리랜서 등에게 적합한 자격을 운영 중임.
- 이들 기관은 자격검정 시 서면지식 테스트(Written Knowledge Test)와 스킬 테스트(Skills Test)를 실시하고, 자격의 종류에 따라 받아쓰기 스킬 테스트(Dictation Skills Test), 실시간 증언 기술 테스트(realtime testimony skills test) 등 해당 자격에 맞는 검정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자격별로 검정방법 및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기자는 일반적으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나 사립 교육기관 자격증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속기 수업은 컴퓨터나 기계 보조 속기, 필사 교육으로 구성되고, 속기 훈련은 법원보고 프로그램뿐 아니라 의료 또는 법적 기록, 텔레비전 자막 또는 사무실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¹⁾
- 속기분야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속기 키보드 작업, 구두점 사용법, 교정 및 편집, 기술적 받아쓰기 등과 함께 의학이나 법학 전문 용어, 전문적 보고 절차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음.
- 속기 과정은 대체로 기계 속기 과정(Machine Shorthand Courses),

1) 이 논문에서는 조정운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San Antonio College와 Community College of Allegheny County 두 기관의 속기 교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살펴봄.

속기 정확성과 스피드 빌딩 과정(Shorthand Accuracy and Speed-Building Course), 보조 컴퓨터 기록 과정(Computer-Assisted Transcription Course), 음성기록 및 캡션 과정(Voicewriting and Captioning Course)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무엇보다 속기기술과 관련된 교과목뿐 아니라 의학, 경영, 법, 최근 사회적 이슈 등 속기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다른 전문 분야를 위한 교과목과 속기사로서 도덕적 책임 함양을 위한 직업윤리 습득을 위한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음. 또 인턴십 또는 실습을 통하여 학생이 교육과정 중 실제 업무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미국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법원 속기사는 약 20,800명으로 지방정부 34%, 주정부 32%,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24%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법원 속기사는 주(州) 또는 지방정부의 법원, 입법부 등에서 일하고,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음.
- 미국의 법원의 속기사는 개인의 능력, 경력, 인증 자격 유무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법원의 속기사 중 하위 10%의 수입 수준이 26,610달러 이하인데 반해, 상위 10%의 수입은 95,990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속기사의 연간 평균 임금이 약 51,320달러로 나타남(미국노동통계국). 이때, 경력 5년~20년차까지의 임금 차이는 크지 않지만, 20년차 이상부터는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노동 통계국(BLS)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속기사의 일자리 증가율을 2%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전체 직업 대한 일자리 증가율 7%와 법 관련 직업일자리 증가율 5%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임.
- 다만, 실시간 자막 및 통신 액세스 실시간 번역(real-time captioning and 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CART)) 교육을 받은 숙련 전문가 일자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함. 이를

통해 요즘과 같은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해당 영역의 속기 수요에 대한 높은 전망을 가능하게 함.

2. 영국

- 영국은 미국에 비해 속기분야 자격이나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편은 아님. City&guilds와 National Council for the Training of Journalists 등 2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속기관련 자격을 살펴본 결과, 한글속기와 유사하게 단어 수나 속도에 따라 자격의 종류가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검정기준을 비교해봤을 때 영국의 속기자격 수준은 한글속기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기자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자격요건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속기 관련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에서도 다른 동료 속기사와 효과적으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 속기사로서 성과를 발전시키기, 편집내용 성공여부를 평가 등의 특징적이 내용이 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속기사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마련은 미흡한 상황임.
- NOS에서는 속기 업무 시, 일정 타이핑 속도 유지, 요청 양식에 대한 편집 및 수정, 정확한 속기록, 속기 장비 활용, 자료의 안전한 저장, 마감기한에 맞는 제출, 계약내용 협상, 속기 용어 사전 업데이트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영국의 속기 관련 NOS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업무에 대한 거절하는 능력과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직업윤리(전문직 실천 원칙)를 지키는 능력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또 속기업무 시 속기사 역할의 이해 및 업무의 목적, 속기 장비의 이해, 고객요구의 정확한 예측 및 이해와 적합한 결과물 제작, 소비자나 팀원과의 의사소통 방법 이해, 피드백 결과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지식을 파악해야 함.
- 무엇보다 자신의 성과와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성 개발 전략

을 세우는 방법이나,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 속기사가 원격지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속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격 화상 회의 또는 영상 회의 장비를 사용하여 원격 전달(Remote delivery)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3. 호주

- 호주는 속기분야의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기사가 되기 위한 저널리즘 단과 안에 일부 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호주의 경우, NCS에 속기사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표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속기사 업무별·분야별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NCS에는 ‘속기노트로 텍스트 제작하기’와 ‘속기 노트로 복잡한 텍스트 제작하기’, ‘법원 절차 오디오 기록하기’, ‘속기를 사용하여 법원 절차 기록하기’, ‘공무 작성 및 편집 서비스 제공하기’ 등의 능력단위 정도가 포함되어 있음.
- 호주의 속기사는 법원 및 의회에서 속기 진행, 텔레비전 방송자막 및 회의 내용 기록 및 서면 번역 등의 역할을 함.
- 호주의 속기사들은 주(州)법원, 국회 의사당, 방송사 및 대기업, 민간업체,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대체로 유동적이고 직업 전망에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
- 일반적으로 키보드 조작원으로 분류된 기계 속기사의 급여조건은 일하는 조직과 경험 수준에 따라 변동되지만, 연간 41,600~51,999 달러 정도인 것으로 예상됨.
- 호주에서 속기사는 정식 자격없이 일하면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속기사 과정을 수강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 속기 자격 검정을 진행하는 대학이나 기관을 찾기는 어려움.

4.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속기기술 뿐 아니라 속기업무 현장에 따른 타 분야의 기초지식과 ‘윤리 및 전문성개발’ 이란 과목을 통하여 대인관계, 재무, 비즈니스 상 전문적 직업윤리를 교육하며,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 속기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Northern 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NAIT)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NAIT에서는 자막 작성 및 법원보고(Captioning and Court Reporting)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 졸업자가 높은 수준의 속기 기술을 습득하여 방송 자막(Broadcast Captioning), CART 제공(CART Provider), 법원보고(Court Reporting/Legal Reporting) 등의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함.
- 교육과정은 재판절차, 기계속기 이론 및 개발, CACR기초 및 중급 영어, CAT 소프트웨어, 형법 및 민법 등의 프로그램, 의학 전문용어, 캡션 및 CART, 기록제작, 최근 사건 및 특별 전문용어, 보고절차, 윤리 및 전문성개발,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캐나다의 평균 속기사(Stenographer) 급여는 연간 43,510달러(시간당 22달러)로 국가 평균 임금 32,790달러의 약 1.3배 수준임. Entry level의 속기사의 급여는 연간 30,000달러이고,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6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조정윤 외, 2017).

Ⅲ. 미래 속기 일자리 및 직무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

1. 비대면, 디지털시대의 속기 직무 개발 방향

-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음성인식 기술, 온라인 화상회의 등에 대비한 직무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속기 교육이나 NCS 직무 분류 등에 포함하고 있음.
- 음성인식에 대한 논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음. 즉, 일부에서는 속기 직무가 음성인식으로 대체되면 기록물 생산비용의 원가절감 및 인건비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속기사들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속기분야에서 음성인식 관련 기술력은 낮고, 인프라 역시 조악하여 속기사 인력을 당장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화상회의나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속기분야의 음성인식에 대한 기술력 향상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회의가 활성화되면서 속기사무소 속기사 채용의 증가하는 한편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속기사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국내 보급에 따른 영화, 드라마, 유튜브 1인 방송 등이 크게 증가, 자막제작 속기업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한국속기학회 내부자료, 2020).
- 따라서 속기 직무에 대한 음성인식 기술 및 대안 관련 논의가 속기 학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속기 직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논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속기와 관련하여 음성인식 기술(skill)은 단지 보조적 수단일 뿐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속기사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속기 직무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음성인식 기술이 속기사를 대체한다는 식의 논의는 속기사 업무범위를 제한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속기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법제화의 주체는 누구인지, 법제화 방향은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법제화 추진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속기 윤리와 책임의식 강화 교육 필요

- 미국 및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속기 교육과정은 단순히 속기의 기술적인 영역뿐 아니라 업무수행 현장과 연계된 타 전문 분야까지 함께 폭넓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어, 속기기술 습득이 중심인 국내 교육과정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이론 수업 후 속기분야 현장에서 실제 속기사의 역할과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현장실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속기 교육과정에 ‘윤리 및 전문성 개발’ 과목 등 직업윤리를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태도를 정확하게 습득하고, 자신이 행한 업무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문가 정신과 책임의식을 교육시키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단순히 속기기술에 관한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속기 윤리와 책임의식 등의 직업윤리 교육도 속기교육에 포함시켜 속기사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SNS 등의 영향으로 맞춤법 파괴가 만연하고,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속기자격 검정 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속기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또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속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속기 자격 활성화를 통한 속기 일자리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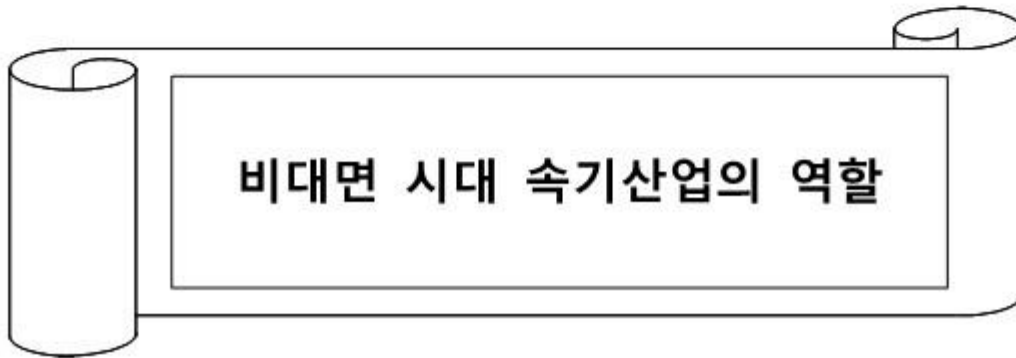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속기 관련 자격의 활용성이나 임금체계 등에 의해 자격에 대한 선호와 효과가 달리 발현될 수 있으므로 속기학회나 관련기관을 통해 속기자격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속기 자격검정체계를 구축·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다양한 속기사 직무를 반영하여 법원속기, 실시간 속기, 자막속기, 군대 관련 속기 등 각 분야별로 속기자격을 세분화하고 있음. 이는 자격검정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음
- 그러나 속기 수험생들의 경우, 기존에는 속기사 자격 하나만 취득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향후에는 세분화된 자격검정체계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수행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됨.
- 이는 결국 속기 검정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속기학회 차원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채용시장 규모와 자격의 고용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해외 속기 자격시장과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속기직무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도 속기자격검정의 다양화, 고도화를 도모하여 속기 자격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때, 속기 자격을 다양하게 구분해 각 국가 혹은 교육기관마다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분야별(의약, 법원 등) 구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분야별로 특화시켜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공통영역의 자격검정을 통과하면 전문영역 검정 준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 예컨대, 속기 관련 공통(기초)영역에 대한 교육은 ‘공통기초과목’에 대한 자격검정체제로 구성해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이후 전문자격에 해당하는 전문 분야의 이론 및 실습검정, 혹은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수여함으로써 자격취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속기학회와 같은 속기 직무 대표기관이 속기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이 되어 관련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수립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속기 자격체계 마련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또 지속적인 속기 직무의 고도화와 속기사 전문 교육을 통해 속기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무엇보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자동음성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AI)의 활용을 고려한 속기 직무 및 자격 개발, 속기업무 수행방식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 조정윤·최윤정·김민혜(2017). 속기분야 직무능력표준(CS) 개발 및 선진
외국사례 조사·분석 연구. 글로벌스킬자격연구원.
- 한국속기학회(2020). 한국속기학회 내부자료.
- 통계분류포털(2019).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https://kssc.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2019).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https://kssc.kostat.go.kr>
- 한국고용정보원(2016). 워크넷 직업정보. <https://www.work.go.kr>
- 한국고용정보원(2018).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https://www.keis.or.kr>
- Australia Training Package, <http://training.gov.au>
- Australia Career Center, <http://www.careercentre.dtwd.wa.gov.au>
- Community College of Allegheny County, <http://www.ccac.edu>
- England NOS, <http://ukstandards.org.uk>
- National Verbatim Reporters Association, <http://nvra.org>
- National Court Reporters Association, <http://www.ncra.org>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www.bls.gov>
- United States Courts, <http://www.uscourts.gov>

종합토론



좌장 : 조정율(한국속기학회 회장)

토론 : 김한우(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주영(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최울정(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

메 모